

1개 지방도시 대학생의 성폭력에 대한 지식 및 태도 조사

이 규 은*·윤 양 소**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성(性)이란 인간의 생물학적 성별과 신체구조, 성관계와 생식능력을 포함하여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규범과 느낌 그리고 자아와 성 역할 및 성 관계 등을 총괄한다. 인간사회에 있어서 성 관계는 문명사회의 범주에 속하며 문화는 광의의 측면에서 특정한 생활양식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의 성문화는 우리사회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특정한 양식의 성생활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성문화는 다른 문화와 마찬가지로 우리사회의 한 단면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이명신, 1989).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서구와는 상이한 성문화가 유지되어 왔으나 근래에 들어 격증한 서구문화의 유입은 산업화, 도시화를 수반한 급격한 사회변동속에서 우리실정에 알맞는 성문화 풍토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서구의 왜곡된 폭력적인 성문화가 피상적으로 도입되는 현상마저 초래하였다. 이러한 서구 성문화의 유입이 전반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쉽지 않으나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만연하고 있는 성폭력 범죄는 흔히 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김은주, 1997).

우리 나라 법무 연수원의 1989년 「범죄백서」에 의

하면 성폭력은 갈수록 증가되는 추세에 있으며 1979년에 2794건, 1987년에는 5034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80년대 이후로는 매해 5000여건씩 신고되고 있으며 70년대에 비해 2배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1991년 「범죄백서」에 따르면 강도, 강간의 경우 1981년에서 1990년 사이에 4.3배로 증가되었다(최영애, 1997). 경찰청이 92년 초에 발표한 「외국범죄통계」에 의하면 5대 범죄인 살인, 강도, 절도, 폭력등은 강력한 민생치안추진으로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강간 사건은 인구 10만 명당 9.8건으로 미국의 41.2, 스웨덴의 16.4건에 비교하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이탈리아의 1.2건이나 일본의 1.3건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조선일보 1992. 4.23 사설).

이는 우리나라가 성범죄 중에서 특히 강간 발생건수가 두번째로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장광미, 1996).

우리나라의 경우 강간범죄는 강력범죄의 하나로 분류되어 있고 특히 최근에는 양적인 증가와 더불어 질적으로도 전반적인 범죄자의 연소화, 흉포화 경향을 보이는 대표적인 범죄로서 그 심각성이 날로 부각되어 가고 있는데(김은주, 1997) 이는 도덕적 기본 개념의 붕괴와 가족제도의 퇴색과 더불어 산업사회의 냉혹한 경쟁과 비인간성 속에서 자양분을 얻은 성윤리의 붕괴로 혼돈 되고 왜곡된 성문화를 낳게 되고

* 관동대학교 간호학과

** 영동전문대학 간호과

이것이 성폭력을 유발시키는 사회적 동기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장광미, 1996). 그러므로 점차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심영희(1993)는 최근 성폭력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 흉포화 함으로써 인신매매, 강간, 어린이 추행 등 극단적인 형태의 성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 성폭력이 우리사회에서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거의 없다는 점, 성폭력의 사회적 파급효과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들면서 성폭력 연구가 중요함을 지적한 바 있다.

한국형사정책 연구원(1990)의 보고서에 의하면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숨기는 특성에 의해 실제 발생건수의 2.2%만 신고된다. 매해 5천 여건 이상 강간이 발생한다는 법무 연수원 보고를 기초로 할 때 한해에 25만 건의 강간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성폭력과 성폭력 피해 여성들이 겪는 피해 후유증은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최영애, 1994).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부남 사건’ ‘김보은·김진관 사건’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성폭력은 한 사람의 삶을 전체를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를 파멸시키며 가해자에 대한 원한이 가해자에 대한 살인 사건 등으로 연결되기도 함으로써 개인적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적, 사회적 문제로 확대된다(최의순, 고명숙, 이규은 및 길숙영, 1996).

한국 성폭력 상담소(1996)의 청소년 성폭력 실태조사에서도 663명의 여학생조사자중 103명(15.54%), 633명의 남학생조사자중 44명(6.97%)이 피해를 경험하였다고 대답한 바 있어 피해가 더 이상 남의 일만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주요 도시별로 성폭력상담소가 개소되어 성폭력의 예방 및 상담사업은 물론 그 지역의 건전한 성문화 선도에 앞장서고 있음은 고무적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우리사회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성폭력에 대하여 남녀차별에 대한 사회화가 비교적 약한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성과 성폭력의 지식 및 태도를 검증함으로써 성폭력의 예방 및 대책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얻고자 시도하였다.

2. 연구의 목적

여성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성폭력에 대하여 건강관리전문직인 간호사의 관심과 돌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깨닫게 하고 구체적인 돌봄체계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성(性)에 관한 생각은 어떠한가?
2. 성별에 따른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성(性)에 관한 생각에 차이가 있는가?
3.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성폭력에 관한 지식은 어느 정도인가?
4. 성별에 따른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성폭력에 관한 지식에 차이가 있는가?
5.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성폭력의 주요원인은 무엇인가?
6. 성별에 따른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성폭력의 주요원인에 차이가 있는가?
7.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성폭력 예방대책은 무엇인가?
8. 성별에 따른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성폭력 예방대책에 차이가 있는가?

II. 성폭력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성폭력의 개념 및 유형

성폭력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가 있으나 대체로 ‘상대방 동의 없이 강제적,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모든 성적행위’로 정의될 수 있으며, 여기서의 성적행위란 윤간, 강간, 강제추행, 성희롱, 성기노출, 성기접촉, 성적 가혹행위, 음란물제작에의 사용, 음란물 보이기, 윤락행위 강요, 음란전화등 상대방에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각종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모든 행위들을 일컫는다(1997, 김순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0)은 성폭력의 유형을 8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을 정의하였는데

첫째, 음란전화는 익명의 남성으로부터 성적 자극을 유발하거나 외설스런 말을 담고 걸려오는 전화를 말하는데, 단순히 신원을 밝히지 않은 의문의 전화와는 구분된다. 그리고 전화를 통해 들려오는 소리가 무엇이든 시간에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 소리가 성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는 판단이 들었다면 음란전화로 볼 수 있다.

둘째, 성기노출이란 여러 사람들 특히 여성들 앞에

서 성기를 일부러 노출시킨 채 서있거나 돌아다니는 남자의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성기를 노출시킨 채 접촉을 하는 경우는 이 유형에서 제외하며 그것은 심한 추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셋째, 성적 희롱이란 어떤 남성이 말이나 몸짓으로 여성들에게 성적인 내용을 담은 희롱을 하는 것으로 신체접촉을 시도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가벼운 추행이나 심한 추행과는 구분된다.

넷째, 가벼운 추행이란 어떤 남성이 고의로 여성의 가슴, 엉덩이, 음부 등을 건드리거나 일부러 몸을 밀착시키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신체의 한 부분을 슬쩍 건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 부분을 만지거나 가해자의 지속적인 쾌감을 위해 신체의 어느 부분을 계속 만지거나 했다면 그것은 심한 추행으로 분류된다.

다섯째, 심한 추행이란 어떤 남성이 여성에게 비록 성교를 시도하지 않았지만 그 여성의 뜻을 무시하고 혹은 강제로 키스, 애무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뜻을 무시하고 혹은 강제로’가 의미하는 바는 남성이 극단적인 강압으로 한 경우 외에도 여성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이나 행동을 분명히 했음에도 아랑곳없이 성폭력을 행한 모든 경우를 포괄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래의 강간미수나 강간의 경우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여섯째, 어린이 성추행이란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추행하거나 강제로 성교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추행과 강제성교를 구분하지 않은 것은 어린이에게도 역시 추행보다는 강제성교가 더 고통스런 경험이었으나 어린이에게 일어나는 성폭력은 유형에 관계없이 그 자체로서 심각하고 인생에 미치는 영향력이 성인에게 일어난 것보다 더 클 것이라는 점에서 피해 정도를 따져 구분하지 않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13세 미만이라는 기준을 택한 것은 아직 어린이 성추행에 대한 본격적 논의나 조사 연구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경우라도 만 13세 미만의 여자와 성교한 사람은 의제강간으로 처벌한다’는 형법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자의적으로 정하는 것보다 더 합리적인 것 같아서이다.

일곱째, 강간미수란 어떤 남성이 여성의 뜻을 무시하고 또는 강제로 성교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는 심한 추행과 강간미수의 구분이 문제가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가해자가 꼭 성기를 삽입하려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위한 전

(前)동작, 이를테면 가해자가 옷을 스스로 벗었다든지, 피해자의 옷을 벗겼다든지,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는 등의 행동들이 있었다면 강간미수로 볼 수 있고, 판단하기가 애매한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명명하는 대로 따른다는 입장에 있다.

마지막으로, 강간이란 어떤 남성이 여성의 뜻을 무시하고 또는 강제로 성교 한 것을 말한다. 여기서 성교라는 것은 가해자의 성기가 꼭 피해자의 질 속에 삽입되지 않은 경우, 이를테면 오랄 성교나 항문성교도 포함하며, 삽입시간, 사정여부 등에 상관없이 일단 삽입이 일어났으면 성립된 것으로 본다.

구수경(1993)은 성폭력은 성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무형, 유형의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신체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남성의 여성에 대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뿐 아니라 동성간에 이루어지는 어느 일방의 성적 자기 결정의 침해 및 양성의 교섭관계가 상시적으로 있는 가정 내에서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 대하는 가해지는 가정내 폭력현상도 포함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성폭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그 범주가 훨씬 넓으며 성차별적 사회구조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2. 성폭력의 원인에 관한 이론

성폭력의 원인은 설명하는데는 가장 심각한 형태인 강간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는 보통, 정신병리학적 관점, 전통주의적 관점(피해자 유발이론), 사회문화적 관점, 여성학적 관점의 4가지 견해로 고찰할 수 있다.

1) 정신병리학적 관점

전통적으로 성폭력과 성폭력가해자의 동기에 대한 해석과 이론은 정신병리학적 관점(Psychopathological perspectives)으로 행해졌다. 즉 남성들이 성폭력을 하는 이유는 개인의 인성적 특성이나 성충동에 의해 일어나는 정신병적 현상 혹은 범죄라는 것이다.

Burgess(1985)는 남성들이 성폭력을 하는 이유를 개별사례의 성장배경을 검토하여 그 남성의 정신병리를 설명하였다. 이 견해에 따르면 성폭력가해자들은 정신적,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개인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성폭력은 인격적 결함이나 감정상의 불안을 지닌 사람들에게 의해 일어나는 것이 된다. 즉 어린 시절에 형성된 여성에 대한 증오가 강박적으로 자극되

거나 잠재적인 동성에 경향 때문에 자신의 남성다움을 확신시킬 필요가 생겼을 때 성폭력을 하게 된다고 설명한다(1997. 김은주).

Thio(1998)의 연구에서 미국 Sing Sing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강간범들 중 정상적인 인격을 지닌 사람은 거의 없고 70%가 정신분열증세를 보였다고 하면서 이들 강간범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 문제를 열거하였다.

- ① 강간범들은 거세공포나 성적부적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으며 이러한 약점을 갖추기 위해 매우 독단적이고 공격적인 성적행동을 저지른다.
- ② 강간범들은 내적 갈등과 사회적 고립감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다.
- ③ 강간범들은 자신의 동성애적 기질을 두려워하는데 오직 여성에 대한 공격적 행동을 취함으로써 자신들의 동성애적 기질을 억제하고자 한다.
- ④ 강간범들은 자신들의 공격에 대항하여 싸우는 여성들에 의해서만 성적인 자극을 받는 경향이 있다.
- ⑤ 강간범들은 많은 경우 외디푸스 콤플렉스(Oedipus complex)를 갖고 있다.
- ⑥ 강간범들은 어린 시절 지나친 성적자극을 경험하면서 성장한 결과 자신을 잔인한 성적(性的) 행동으로 이끌어 간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맞서고 있는데 Koss et al(1985)에 의하면 감옥에 수감중인 강간범 또는 자기보고서 연구에 나타난 성폭력범의 집단에서 정신병리학적 존재를 뒷받침할만한 경험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고 하였다. Scully & Marolla(1985)도 강간범 중 정신질환자는 5%에 불과하다고 하여 이 견해를 반박하고 있다.

2) 전통주의적 관점 (피해자유발 이론)

이 견해는 성폭력 피해자인 여성들이 남자들을 유혹하여 그들로 하여금 성적충동을 갖게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Amir는 피해자 유발(Victim-precipitation)개념을 채택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상호작용하는 상대(Mutually interacting partner)로 설명한다. 그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전체 강간의 19%가 피해자에 의하여 유발되었다고 한다(Box, 1983).

한국형사정책 연구원(1990)의 강간에 대한 통념조사에서 나타난 ‘강간은 피해자가 유발하는 것이다’ ‘강간은 피해자가 충분히 저항하지 않아서 일어난다’

‘강간은 피해자가 부주의한 탓이다’란 항목이 이 견해에 해당하는 것이다.

Box(1983)도 성폭력 피해자들의 공통적인 행동으로써 낯선 사람과 함께 술을 마신다던가, 낯선사람의 차에 동승한다던가, 신체적 접촉을 자주 갖는다던가, 성적 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장소에 함께 있는 것 등을 들고 있다.

이 견해는 성폭력을 기본적으로 여성의 잘못으로 비난하고 가해 남성에게는 성폭력이라는 범죄를 은연중에 정당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므로써 다른 범죄에서의 피해자 평가와 비교할 때 여러 가지 부당한 점을 드러낸다. 강도나 절도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문을 잠그지 않았거나 귀중품을 노출시키고 다녔다는 점이 비난을 받지는 않는다. 이에 반해 성폭력에서는 피해여성이 노출이 심한 옷을 입었다던가 혹은 모르는 남성의 차를 얻어탔거나 하는 점들이 피해자 여성에게 비난을 초래하고 가해자 남성에 대한 범죄행위를 정당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사법처리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3) 사회문화적 관점

성폭력은 대부분의 다른 행동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통하여 학습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의 전제는 ‘일탈적인 행동은 문화적인 접촉과 다른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관계에 의한 사회화를 통해서 학습된다. 여기에서 학습되는 내용은 행동기술 뿐 아니라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정당화하는 강간신화와 같은 수많은 가치관과 신념들을 포함한다.

또한 여성이 강간을 즐기며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믿도록 만드는 강간신화는 감옥에 수용된 강간범들이 그들의 범죄를 정당화하거나 변명하는데 그리고 그들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결과를 부인하는데 사용된다(Scully & Marolla, 1985).

Scully(1990)에 의하면 성폭력은 학습된 행동이고 그것은 여성억압과 비하감을 통해서 사회정치 경제 구조들이 성폭력을 부추기고 있는 사회와 문화집단에서 발견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여성 비하감이란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많은 특권을 주는 것과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욱 정숙할 것을 요구하는 이중기준의 가치관이다. 이러한 가치관들은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반영하는 것이며 여성에 대한 태도가 매우 적대적이고 폭력적임을 드러낸다(박현이, 1995).

Koss(1981)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폭력을 하지 않은 남성들에 비해서 성폭력을 한 남성들에게서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발견했다.

- ① 성폭력을 정상적인 것으로 본다.
- ② 여성의 성(sexuality)에 대해서 보수적인 태도를 취한다.
- ③ 강간신화에 대해서 상당히 수용적이다.
- ④ 성관계를 유희거리(놀이)로 여긴다.
- ⑤ 강간의 책임을 여성에게 돌린다.
- ⑥ 여성의 성역할에 대해서 전통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와 같은 견해에 따르면 성폭력은 폭력이 아니라 문화와 성적 불평등이 존재하는 사회안에서 여성을 비하하여 나타난 남성지배의 행동으로 남녀에게 다르게 부여되는 권력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즉 성폭력의 발생은 성폭력 가해자들이 사회문화적으로 학습한 여성관과 관련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성폭력 가해자들에게는 성폭력에 대한 변명과 합리화를 제공하는 구실이 된다.

4) 여성학적 관점

이 관점은 기존의 관점들이 남성중심적 시각을 기초로 하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그에 대한 대안적인 설명의 성격을 띠면서 발전되어 왔으며 최근까지 성폭력에 대한 가장 영향력 있는 시각으로 간주되어 오고 있다. 시기별로 성폭력에 대한 여성학적 관점의 차이를 정리하여 보면, 1970년대 초 여성학자들은 강간을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으로 규정하고 가부장적 또는 남성 우위의 사회를 분석하는데 있어 남성 폭력의 심각성을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강간이 가부장제 유지에 기여한다는 점에 대한 1970년대 초 여성학자들의 쟁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직도 많은 사회에서 성(sexuality)과 공격성 그리고 남성성의 주요 구성요소인 폭력 사이에 밀접한 상호연관이 있다.

둘째, 강간과 정상적인 이성간의 성교사이에는 질(質)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만이 있을 뿐이다.

셋째, 여성의 약탈자로서의 남성과, 여성의 수호자 또는 보호자로서의 남성 사이에 모순이 있다.

넷째, 남성성에 대한 보완으로 구성된 여성성은 여성의 성적 자결 능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남성의 공격에 대한 육체적·심리적 취약성을 증가시킨다.

다섯째, 강간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집단적 지배를 대표하고, 따라서 테러리즘에 가까운 행위이다.

여섯째, 법적·사법적 제도가 여성을 지지·보호하지 못하고 여성의 상해를 배상하지 못한다는 점등을 쟁점으로 삼았다.

197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여성학자들은 직접적으로 신체적 힘이나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여성학대, 즉 협박이나 착취, 성적 회롱 쪽으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곧 여성들에게 두려움을 주거나 위협하는 것은 무엇인지 여성의 행위에 대한 남성들의 통제라는 맥락 안에서 설명되어야 하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여성들이 남성들의 폭력이나 권력을 어떻게 경험하며, 남성으로부터의 강간이나 공격에 대한 두려움이 여성의 행위를 어떻게 제한하는지를 밝히는데 역점을 두었다.

1980년대와 최근에 이르러서는 성의 영역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데, 여기서 성(sexuality)이란 생식능력과 신체발달을 포함하고, 남성과 여성으로서의 자아, 즉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태도·가치·신념 등 인간의 전체적인 면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은 생물학적 차원의 자연적이고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한 사회구조 속에서 구성되어지는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학자들은 성의 영역을 통해 성차별적 사회에서 구성된 남성 중심적 성과의 연관 속에서 성폭력을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여성학자들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공통적인 통제형태의 하나가 강간의 사용이라고 주장하면서 남성에 의해 저질러지고 국가에 의해 용인되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가진다고 한다.

첫째, 남성통제에 저항하는 여성을 처벌하는 것.

둘째, 여성을 감시함으로써 여성이 특정방식으로 행동하거나 행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셋째, 성적, 정서적, 가정적 서비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

넷째, 이 모든 것을 통해 남성지배 및 여성존속을 유지하는 것 등이다(김은주, 1990).

여성학자들은 성폭력의 원인을 남성다움이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공격적이고 지배지향적임을 강조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설명하는데에 일치한다. 다시 말해 이들은 성폭력발생을 전통적 성역할이 확대 과정된 결과로 간주한다. 따라서 성폭력은 남성이 여성에 대해 폭력을 사용하는 기본무기로서 남성에게는 의지력을 여성에게는 두려움을 불러 일으키게 하는 여성지배를 위한 사회적 폭력이라는 것이다(김태연,

1990).

레드레이(1995)는 “강간은 생물학적으로 예정된 것이 아니다. 여성이 불평등한 대접을 받고 인간 상호간의 폭력이 인정되며 사회, 직장 그리고 남녀의 만남에서 남성의 지배가 기대되고 용납되는 문화에서만 강간은 예정된 것이다. 여성에게 순종과 순응이 기대되고 때로는 남성의 소유물로 인정되는 인간관계에서 강간은 전체적인 폭력패턴의 연장에 지나지 않는다. 강간범은 사회각본에 따라 연기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강간은 사회적 지배수단의 한 형태이다. 이는 남자가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남자가 될 수 있는 길이고 복수의 한 형태이며 일종의 남성의 권리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박현이(1995)가 보호관찰 대상자인 청소년 성폭력범을 대상으로 한 면접연구결과 비행청소년의 성폭력 문제는 개인적인 특수성이나 비정상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으로 학습된 결과이며 이들의 학습한 내용은 행동기술 뿐 아니라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정당화하는 강간신화와 같은 수많은 가치관과 신념들을 포함한다. 청소년의 성범죄는 폭력을 용인하고 성을 부추기는 비행문화에서 또래관계를 통해 학습한 성 차별적인 여성관과 성욕 지향적인 남성다움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우리 나라의 여성학자들은 성폭력의 원인을 남성중심의 가부장제, 성 차별적인 고정관념, 남성은 선천적으로 성욕을 억제하기 어렵다는 편견과 같은 우리 사회의 이중적 성 윤리와 성 윤리 교육의 부재, 향락, 폭력문화의 범람으로 진단하고 있다(정무장관 제2실, 1997).

3. 성폭력의 피해(후유증)

성폭력 피해는 피해자의 전 인격에 깊은 상처와 광범위한 후유증을 남긴다. 성폭력을 당한 나이, 가해자와의 관계, 피해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피해자들은 공통적으로 자존심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고 그 결과 가족관계·교우관계를 포함하는 대인관계의 균형을 잃게 되어 점차 환경으로부터 고립 단절되며 또한 자신의 내면세계에서 인격의 통합성을 상실하게 되어 총체적인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신체적으로는 임신, 낙태, 질의 통증을 초래하며 정서적으로 우울, 분노, 죄의식, 수치심, 순결 상실감,

성적 혐오감등의 후유증으로 시달리며 정신질환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성적인 후유증으로는 자위, 왜곡된 성적체감, 동성 애착, 이성 혐오, 성폭력 가해, 성기능 장애, 성 혐오, 불감증, 섹스와 애정의 혼란, 과잉 성행동이 나타난다(최영애, 1997).

또한 성폭력에 대한 불안감이 거의 대부분의 여성에게서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 대다수의 여성들이 일상생활과 여가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형사정책연구원, 1990). 박민자(1996)도 강간에 대한 공포는 모든 여성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이로 인해 여성들의 옷입는 방식, 그들이 지켜야 할 시간, 그들이 걷는 길 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들의 자유를 제한한다. 강간으로 부터 면제된 여상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공포심은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하였다.

Robinson(1990)도 성폭력 피해자가 가지는 느낌은 무력감, 독립성과 의존성에 대한 갈등, 죄책감, 불안, 부적절감 등을 들고 있다.

이명선(1989)은 피해여성들은 강간당한 것을 전후 상황에 관계없이 자신이 성관계를 했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괴로워한다고 보고하였다. 즉 피해여성들이 강간이라는 고통스러운 체험을 스스로의 주관적 판단으로 규정해내기 보다는 자신이 내면화한 여러 남성중 문화, 규범, 태도, 인식 등을 통해 강간이라는 폭력적, 굴욕적인 대상화의 경험을 일반적인 성관계 행위로 인식하고 “더럽혀졌다” “누가 나 같은 사람과 결혼할까?” 등 순결상실의 의식을 갖는다고 한다.

한국 성폭력 상담소(1996)의 조사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갖는 피해당시의 느낌은 화가 났다, 무서웠다고 나타나 두려움과 분노를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0)의 연구에서 성기노출, 성적희롱, 가벼운 성추행을 경험한 여성들은 일과 공부에 지장을 받고 있으며, 불쾌감, 두려움등의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였고 강간미수, 강간피해자들은 수치감과 우울감을 가지게 되고 남성에 대한 두려움이나 가해자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을 느꼈으며 심지어는 죽고 싶은 마음이 들거나 타락해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Mrazek & Mrazek(1981)는 아동기 성학대가 남긴 단기적, 장기적 영향을 성적응의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교육문제, 자아개념에 있어서의 문제와 행동증상의 네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보고하였다. 이 가운데 성적응의 문제가 가장 흔히 발표되었는데 아동, 청소년

년기에 보이는 성문제로는 ①성문제에 집착, ②자위행위의 증가, ③감자기 이성과 성관계를 갖음, ④성충동을 조절할 수 없는데 대한 실망, ⑤임신, ⑥성정체성(gender identity)의 장애, ⑦성문란, ⑧동성연애, ⑨매춘부, ⑩어린아동을 수행함 등이다. 성학대를 당한 소녀는 성문란, 매춘부가 되기 쉬운 반면 성학대를 당한 소년은 오히려 가해자와 동일시하여 나중에 가해자가 되기 쉽다. 이러한 성문제가 성인이 되었을 때는 앞의 문제들 이외에 ①성행위의 회피, ②만족스럽지 못한 성관계, ③성기능 장애, ④사생아 임신, ⑤자신의 자녀를 성학대로 부터 보호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을 경험한 여성은 3가지 단계를 경험한다.

급성기는 성폭력 직후에 나타나며 3~6개월 정도 지속된다. 증상으로는 불안, 공포, 두려움, 의심, 우울, 열등감, 혼돈, 일과 공부에 어려움, 죄책감, 수치감, 당황, 자기비하가 나타난다. 또한 식사, 수면, 위장기능, 성적 친밀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기간동안 필요한 정서적 요구는 안전감과 통제력 회복이다. 성폭력 후 66%의 여성이 경하거나 중정도의 외상을 입었고 4.5% 여성은 심한 신체적 상해를 입어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다.

중간단계 혹은 재적응 단계는 과도기로 성폭력피해자가 폭행을 예방하고 또 다른 폭력을 피하기 위한 비현실적인 계획을 세운다.

최종단계는 재조직화로 2년 이상 걸린다. 이 기간 동안 피해자는 성폭력이라는 현실을 극복하고 생활양식, 관계, 업무를 변화시킬 수 있다(Youngskin & Davis, 1994).

Hampton(1995)도 성폭력의 피해자들은 신체적, 정서적 손상을 경험한다고 하면서 '강간 외상 증후군(rape trauma syndrome)'이 뒤따른다고 하였다. 강간 외상 증후군의 단기 단계는 몇 시간에서 몇 일 사이로 정서적 쇼크, 불신, 절망감을 나타내며 외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은 정서적 불안정에서 부터 잘 통제된 행동까지 다양하다고 하였다.

장기단계는 피해자 자신이 자신의 인생과 관계를 재구성하는 기간으로 몇 달에서 몇 년이 걸린다고 하였다.

Moncrieff et al(1996)은 알콜 중독 모임의 참석자 중 성적학대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알콜 중독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알콜 소모량, 알콜 의존성, 알콜과 관련된 문제를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성적학대는 그들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그 결과 죄의식, 무가치감, 신뢰감 상실, 성적문제, 반사회적 행동이 나타났고 이들 중 일부는 이러한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계속 알코올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강간으로 인한 상처의 손상을 조사한 결과 68%의 여성이 생식기계 외상을 경험하였고(Slaughter, 1997) 팔, 대퇴, 목, 유방/가슴, 종아리, 얼굴/머리, 등, 무릎, 어깨, 손, 둔부 등에 타박상이나 꺾힘등의 손상을 입었으며(Bowyer and Dalton, 1997) 임신비율은 5%에 달하였다(Holmes et al, 1996).

4. 성폭력의 실태

1990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신고된 성폭력 피해자의 연령이 최하 4세에서 최고 64세까지 나타났다. 또한 여성들이 생애동안 경험한 성폭력의 피해를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가벼운 추행 76.4%, 신체의 중요한 부위 노출 74.5%, 성희롱 48.6%, 음란전화 46.3%, 심한추행 23.7%, 강간미수 14.1%, 강간 7.7% 등으로 나타났다. 조사당시 2290명의 대상으로 한 조사자료를 근거로 성폭력중 강간의 경우에 한정하여 추산한 결과를 보면 신고율은 전체발생건수의 2.2%에 불과하여 실제로 노출되지 않은 성폭행의 발생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 미국의 경우도 강간은 3명의 여성중 1명의 여성이 경험한다(Strauss & Smith, 1993)고 할만큼 심각하다.

한편 1988년 경제기획원 「사회지표조사」에서는 성폭행의 피해를 입고도 신고하지 않은 비율이 85%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지난 1981년도 신고된 강도·강간이 121건이 발생한데 비해 1990년도에는 이 수치의 2.5배가 넘는 643건이 발생하여 10년 사이에 5.3배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다른 강력 범죄 즉 단속강도나 강도상해, 강도살인등의 증가추세에 비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한국여성개발원, 1993).

1996년 국제 통계상에 나타난 우리 나라의 인구에 비례한 강간 발생 건수는 스웨덴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이다(장광미, 1996). 성범죄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우리 나라 강간사건의 신고율은 2.2%를 넘지 않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0)의 성범죄 유형별 신고율 조사에서 강간의 신고율이 1.8%로 나타나는 등 극히 저조한 신고율을 보였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 성폭력 신고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무척 저조하고 따라서 다른 범죄와는 달리 성폭력사건의 공식통계는 사실상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이처럼 신고율이 낮은 이유는 피해여성들이 사회가 성폭력 피해자에게 주는 오명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여자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는 등의 통설이 지배적이고 그래서 피해여성은 이차적인 심리적 손상을 막기 위해 신고를 기피한다(김성영, 1989). 이는 우리사회가 전통적으로 기본 성윤리관인 순결 이데올로기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폭력 범죄도 다른 일반 범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지만 성폭력에서의 피해자는 가해자보다 몇 배나 높은 죄의식과 수치심을 갖게 된다. 반면에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는 다른 범죄자와는 달리 그다지 큰 죄의식을 갖지 않는다. 이런 현상은 우리사회가 성폭력에 대해 갖고 있는 이중적 성규범에 의한 남성위주의 잘못된 사회통념에서 온다고 할 수 있다. 성폭력 피해자는 자기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보다 우리 나라 대대로 내려오는 정결(순결)이데올로기를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는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수치심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기를 꺼리게 되고 이러한 이유로 공식화된 성폭력 사건의 수치보다 가정이나 사회속에서 은폐되어 있는 성폭력 사건의 수치가 훨씬 높다고 할 수 있다(장광미, 1996).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K시에 위치한 3개대 대학생중 본 연구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고 설문에 응하기를 동의한 남자 대학생 222명, 여자 대학생 200명 총422명이었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문항, 성에 대한 태도 측정 11문항, 성폭력에 대한 지식 측정 10문항, 성폭력의 원인 및 예방대책에 대한 의견을 측정하는 2문항의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 자료수집기간 및 방법

자료수집기간은 1998년 9월 1일부터 9월14일 까지 2주간 이었다.

수집방법은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 기입방법을 설명한 후 한 문항도 빠짐없이 기입하도록 하였다.

500부를 배부하여 470(94%)가 회수되었고 회수된 자료 중 불완전하거나 누락되어 자료처리가 곤란한 48부를 제외한 총422부(84.4%)를 자료 처리해 사용하였다.

4. 자료 처리 및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PC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성에 대한 태도 및 성폭력에 대한 지식은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고 성별에 따른 성에 대한 태도와 성폭력에 대한 지식은 평균, 표준편차, t-test로 하였다.

그리고 성별, 성폭력의 원인 및 예방에 대한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처리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성별분포는 남학생 222명(52.6%), 여학생 200명(47.4%)으로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며 연령은 20세 미만 175명(41.5%), 20~24세 226명(53.5%), 25세 이상 21명(5%)로 평균 20.61세였다.

종교는 없음 196명(46.4%), 기독교 99명(23.5%), 불교 95명(22.5%), 천주교 19명(6.9%), 기타 3명(0.7%)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2. 성에 대한 태도

남녀 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태도는 '여성은 절대로 능동적이어서는 안되며 남성이 관심을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문항에서 평균 3.37점을 나타내 성에 대한 태도 문항 중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냈다. 그 다음으로는 '피임은 여성이 책임져야 한다', '남편이 성관계를 원하면 아내는 싫더라도 이에 응해야 한다', '신체적 순결보다 정신적 순결이 더 중요하다'의

〈표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특 성	구 분	실 수	백분율(%)	평균
성 별	남	222	52.6	20.61
	여	200	47.4	
연 령	20세 미만	175	41.5	
	20~24세	226	53.5	
	25세 이상	21	5	
종 교	기독교	99	23.5	
	불 교	95	22.5	
	천주교	29	6.9	
	없 음	196	46.4	
	기 타	3	0.7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성에 대한 태도 분석에서 남자 대학생군에서는 ‘여성은 절대로 능동적이어서는 안되며 남성이 관심을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문항에서 평균 3.29점의 가장 높은 순위를 부여한 반면 여자 대학생군에서는 ‘남편이 성관계를 원하면 아내는 싫더라도 이에 응해야 한다’는 문항에서 평균 3.57점의 가장 높은 순위를 나타냈다.

또한 ‘성은 즐기는 것이다’라는 문항을 제외한 거의 모든 문항에서 여자 대학생군이 남자 대학생군보다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냈다. 남자 대학생군과 여자 대학생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문항은 ‘피임은 여성이 책임져야 한다’, ‘남편이 성관계를 원하면 아내는 싫더라도 이에 응해야 한다’, ‘성관계시 여성들은 걸음으로는 아니오 하면서도 속으로는 좋아한다’, ‘성은 즐기는 것이다’, ‘성은 항상 억제해야 한다’, ‘성은 드러내놓고 얘기할 만한 것이 아니다’, ‘여성은 절대로 능동적이어서는 안되며 남성이 관심을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였으며 전체적인 성에 대한 태도에서 남자 대학생군과 여자 대학생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t = -4.16, p = .000$) (표 2 참조).

3. 성폭력에 대한 지식

남녀 대학생들의 성폭력에 대한 지식은 ‘성폭력 범 죄는 개인적이고 성적인 문제로만 이해될 것이 아니라 쾌락주의가 빚어낸 우리의 사회적 문제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문항에서 평균 3.31점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나타냈으며 ‘성폭력 피해는 한 번에 그친다’, ‘성폭력으로 인한 충격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 ‘성폭력은 낯선 사람에게 의해서 일어난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성에 대한 태도

문 항	전 체	남	여	t-test	P-value
여성은 절대로 능동적이어서는 안되며 남성이 관심을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3.37(.81)	3.29(.86)	3.45(.75)	-2.06	.040
피임은 여성이 책임져야 한다.	3.29(.88)	3.05(.96)	3.56(.70)	-6.24	.000
남편이 성관계를 원하면 아내는 싫더라도 이에 응해야 한다.	3.27(.82)	3.00(.92)	3.57(.56)	-7.52	.000
신체적 순결보다 정신적 순결이 더 중요하다.	3.01(.93)	3.00(1.02)	3.02(.82)	-.22	.826
성관계를 누가 주도해야 하는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2.99(.79)	2.98(.82)	2.99(.750)	-.10	.917
성은 드러내 놓고 얘기할 만한 것이 아니다.	2.97(.80)	2.88(.82)	3.08(.77)	-2.60	.010
성은 항상 억제해야 한다.	2.95(.76)	3.06(.79)	2.84(.71)	3.03	.003
남성의 성욕은 억제할 수 없다.	2.92(.91)	2.90(.96)	2.94(.84)	-.44	.658
결혼은 했을 경우 만약 배우자가 순결하지 않다면 절대 용서할 수 없다.	2.62(.95)	2.59(.98)	2.66(.91)	-.76	.449
성관계시 여성들은 걸음으로는 ‘아니오’하면서도 속으로는 좋아한다.	2.61(.86)	2.31(.83)	2.94(.77)	-7.96	.000
성은 즐기는 것이다.	2.06(.90)	2.27(.93)	1.83(.80)	5.14	.000
합 계	32.06(3.87)	31.32(4.14)	32.87(3.41)	-4.16	.000

성별에 따른 성폭력에 대한 지식측정에서는 남자 대학생군은 '성폭력 범죄는 개인적이고 성적인 문제로만 이해될 것이 아니라 쾌락주의가 빚어낸 우리의 사회적 문제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문항에서 평균 3.24점의 가장 높은 순위를 부여한 반면 여자 대학생군은 '성폭력으로 인한 충격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는 문항에서 평균 3.49점의 가장 높은 순위를 나타냈다.

또한 '성폭력 가해자는 정상인이 아니다', '성폭력 상황에서 여성들은 거부나 저항보다 쉽게 포기하거나 체념하게 된다'는 두 문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문항에서 여자 대학생군이 남자 대학생군보다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남자 대학생군과 여자 대학생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문항은 '성폭력 피해는 한 번에 그친다', '성폭력으로 인한 충격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 '성폭력 피해는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성폭력 상황에서 여성들은 거부나 저항보다 쉽게 포기하거나 체념하게 된다', '성폭력 피해는 젊은 여자에게서 주로 일어난다', '성폭력은 낯선 곳이나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일어난다', '성폭력은 낯선 사람에게 의해서 일어난다', '성폭력 범죄는 개인적이고 성적인 문제로만 이해될 것이 아니라 쾌락주의가 빚어낸 우리의 사회적 문제로 파악되어야 한다'였으며 전체적인 성폭력

에 대한 지식에서 남자 대학생군과 여자 대학생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t = -6.82, p = .000$) (표 3 참조).

4. 성폭력의 원인에 대한 연구대상자들의 의견

성폭력의 원인에 대한 연구대상자들의 의견은 '올바른 성교육의 부재', '물질만능과 쾌락을 우선시하는 우리의 사회적 풍토', '성적 자극물(도색잡지, 음란비디오 TV프로 등)의 영향', '성적인 충돌', '여성 억압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사회구조와 그로 인한 왜곡된 성문화', '성폭력 범죄에 대한 관대한 인식과 사회적 무관심', '도덕심 상실과 공동체 의식이 결여', '남녀 차별적인 성역할 사회화'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녀 대학생군 모두에서 '올바른 성교육의 부재'가 1순위로 나타났다(표 4 참조).

5. 성폭력 예방에 대한 연구대상자들의 의견

성폭력 억제에 대한 필요한 조치로는 '청소년들에 대한 올바른 성교육', '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한 신속, 정확한 검거와 처벌의 강화', '쾌락위주의 사회적 풍토', '성적 자극물(음란 비디오 등)의 확산에 대한 규제 강화 및 향락 산업의 규제', '남녀 차별적인 성역할

<표 3> 성폭력에 대한 지식

문항	전체	남	여	t-test	P-value
성폭력 범죄는 개인적이고 성적인 문제로만 이해될 것이 아니라 쾌락주의가 빚어낸 우리의 사회적 문제로 파악해야 한다.	3.31(.70)	3.24(.78)	3.39(.59)	-2.09	.038
성폭력 피해는 한 번에 그친다.	3.27(.72)	3.14(.82)	3.42(.57)	-3.19	.000
성폭력으로 인한 충격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	3.23(.84)	3.01(.90)	3.49(.68)	-6.16	.000
성폭력은 낯선 사람에게 의해서 일어난다.	2.90(.78)	2.82(.83)	2.99(.71)	-2.25	.025
성폭력 가해자는 정상인이 아니다.	2.80(.91)	2.82(.87)	2.79(.96)	.29	.776
성폭력 피해는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2.54(.90)	2.26(.83)	2.86(.87)	-7.27	.000
성폭력 상황에서 여성들은 거부나 저항보다 쉽게 포기하거나 체념하게 된다.	2.39(.86)	2.66(.80)	2.09(.83)	7.19	.000
성폭력 피해는 젊은 여자에게서 주로 일어난다.	2.21(.82)	1.99(.77)	2.45(.81)	-5.97	.000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현재보다 무겁게 한다면 성폭력 범죄는 줄어든다.	2.16(.91)	2.13(.93)	2.19(.90)	-.67	.505
성폭력은 낯선 곳이나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일어난다.	2.12(.72)	2.00(.70)	2.26(.71)	-3.79	.000
합계	26.96(3.01)	26.06(2.60)	27.91(2.96)	-6.82	.000

<표 4> 성폭력의 원인에 대한 연구대상자들의 의견

의견	전체	남	여
올바른 성교육의 부재	114 (27.0%)	63 (28.4%)	51 (23.5%)
물질만능과 쾌락을 우선시하는 우리의 사회적 풍토	80 (19.0%)	53 (23.9%)	27 (13.5%)
성적 자극물(도색 잡지, 음란비디오, TV프로 등)의 영향	67 (15.9%)	36 (16.2%)	31 (15.5%)
성적인 충동	51 (12.1%)	32 (14.4%)	19 (9.5%)
여성 억압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사회 구조와 그로 인한 왜곡된 성문화	50 (11.8%)	16 (7.2%)	34 (17.0%)
성폭력 범죄에 대한 관대한 인식과 사회적 무관심	37 (8.8%)	8 (3.6%)	29 (14.5%)
도덕심 상실과 공동체 의식의 결여	22 (5.2%)	13 (5.9%)	9 (4.5%)
남녀차별적인 성역할 사회화	1 (0.2%)	1 (0.5%)	0 (0%)
계	422 (100%)	222 (100%)	200 (100%)

사회화의 개선', '성폭력 추방을 위한 범국민운동 추진', '남녀 불평등 구조개선(여성을 억압하는 성문화 개선)', '방법제도의 부활 및 방법대원의 증강과 방법 시간대의 연장'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녀 대학생군 모두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올바른 성교육'이 1순위로 나타났다(표 5 참조).

6. 성에 대한 태도와 성폭력에 대한 지식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성에 대한 태도와 성폭력에 대한 지식간 ($r = .2538, P < .0001$)에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V. 논 의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태도, 성폭력에 대한 지식, 성폭력에 대한 원인과 예방 대책에

대한 의견, 성별에 따른 성에 대한 태도 및 성폭력에 대한 지식의 유의성 검정 및 그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성별분포는 남녀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며 연령분포는 18세에서 24세까지가 95%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조사대상자를 현재 대학에 재학중인 사람으로 한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종교분포는 없음이 거의 반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기독교, 불교, 천주교의 순이었다.

성에 대한 태도는 Likert 척도로 된 11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는데 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매우 그렇다'에 4점으로 처리하였다. 성에 대한 보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문항은 점수를 반대로 주었다. 측정치에서 남녀 대학생들이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보여준 문항은 '여성은 절대로 능동적이어서는 안되며

<표 5> 성폭력 억제에 대한 연구대상자들의 의견

의견	전체	남	여
청소년들에 대한 올바른 성교육	145 (34.4%)	76 (34.2%)	69 (34.5%)
성폭력 범죄자들에게 대한 신속, 정확한 검거와 처벌의 강화	84 (19.9%)	34 (15.3%)	50 (25.0%)
쾌락위주의 사회적 풍토	51 (12.1%)	27 (12.2%)	24 (12.0%)
성적 자극물(음란비디오 등)의 확산에 대한 규제강화 및 향락산업의 규제	46 (10.9%)	28 (12.6%)	18 (9.0%)
남녀 차별적인 성역할 사회화의 개선	43 (10.2%)	29 (13.1%)	14 (7.0%)
성폭력 추방을 위한 범국민운동 추진	23 (5.5%)	11 (5.0%)	12 (6.0%)
남녀불평등 구조개선(여성을 억압하는 성문화 개선)	21 (5.0%)	9 (4.1%)	12 (6.0%)
방법제도의 부활 및 방법 대원의 증강과 방법 시간대의 연장	9 (2.1%)	8 (3.6%)	1 (0.5%)
계	422 (100%)	222 (100%)	200 (100%)

남성이 관심을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였는데 여성은 성행동에 있어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고정관념과는 상반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여자대학생군이 남자대학생군에 비해 대부분의 문항에서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내 여자대학생군이 남자대학생군보다 성에 대하여 보다 개방적임을 나타냈는데 이는 '여성의 역할 및 지위변화' '여성에 대한 태도의 변화' 등으로 인해 여자 대학생군이 전통적인 여성성(소극적, 수동적)을 내면화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그러나 '성은 즐기는 것이다'라는 문항에서는 여자대학생군이 더 낮은 평균점수를 나타내고 있어 성에 대한 더 높은 윤리성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여자대학생군은 이중적인 성윤리, 여성에게 책임 전가, 순결 이데올로기등의 성 고정관념에서 상당히 탈피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성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고 활발한 논의가 진행중이며, 여성에 대한 교육이 증가하고, 여성단체의 운동 및 요구가 증대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성폭력에 대한 지식 측정에서 평균점수 이상을 보인 문항은 '성폭력 범죄는 개인적이고 성적인 문제로만 이해될 것이 아니라 쾌락주의가 빚어낸 우리의 사회적 문제로 파악해야 한다' '성폭력 피해는 한 번에 그친다' '성폭력으로 인한 충격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 '성폭력은 낮은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다' '성폭력 가해자는 정상인이 아니다'로 남녀 대학생군 모두 일반적 통념에서 탈피해 성폭력에 대해 상당한 이해 수준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성별에 따른 성폭력에 대한 지식수준에서 여자대학생군이 남자대학생군보다 거의 대부분의 문항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는데 이는 성폭력의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이라는 현실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남자대학생집단은 성폭력에 대해 남성지배적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성폭력의 원인으로 '올바른 성교육의 부재' '여성억압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사회구조와 그로 인한 왜곡된 성문화' '남녀 차별적인 성역할 사회화' 는 여성학적 관점, '성적인 충돌'은 심리학적 관점, '물질만능과 쾌락을 우선시하는 우리의 사회적 풍토' '성적자극물(도색잡지, 음란 비디오, TV프로 등)' '도덕성 상실과 공동체 의식의 결여' '강간범죄에 대한 관대한 인식과 사회적 무관심'은 일반적으로 성폭력의 원인으로

로 지적되는 것이다. 이중 성폭력의 가장 큰 원인으로 '올바른 성교육의 부재'를 들고 있었는데 이는 최영애(1997)가 성폭력을 인간의 존엄성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며 유치원에서 대학교에 이르기 까지 모든 학교에서 성교육을 필수화해야 한다고 제언하였고 청소년기에 남녀역할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한 박현이(1995)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남녀대학생군에서 성폭력 억제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청소년들에 대한 올바른 성교육'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성폭력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올바른 성교육으로 부재'를 지적한데 대한 논리적 일치를 보여준다 하겠다.

그 다음 순위로 '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한 신속, 정확한 검거와 처벌의 강화'를 들고 있는데 형사사법체계는 성폭력의 신고율을 높이고 법정행과 사법처리를 통해 성폭력을 억제하는데 그 기본적인 역할이 있다 하겠다. 그러나 우리사회에 성폭력 범죄의 신고율은 강간미수 1.9%, 강간 1.8%, 성적희롱 1.2%, 성기노출 1.1%, 심한추행 0.9%, 가벼운 추행 0.8%, 어린이 성추행 0.7%, 음란전화 0.6%로 매우 저조하다.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경찰, 검찰, 법원이 다른 조직이나 제도들에 비해 성폭력을 대처하는 적극성이 낮다고 지적하였으며 강간범에 대한 경·검찰의 수사과정에서도 신속성과 효율면에서 부정적이고 형사사법 실무자들이 성폭력 범죄에 대해 갖는 고정관념적 시각과 태도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다. 따라서 성폭력 처리와 관련하여 형사사법체계가 개선되어야 하고 전문신고센터설치, 여성경찰 및 여검사제도도입, 비공개재판, 전문의료기관설치, 상담소, 피난처설치등이 필요하 하겠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심영희(1993)는 성폭력의 예방대책으로 몇가지의 차원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경제적차원에서 (1) 분배구조개선, 저소득층 보호, 상류계층의 부정비리적결의 요구되고 (2) 향락산업에 대한 규제를 통해 매춘여성의 수효를 차단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3)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평등, 동일임금 보장을 통해 여성의 성 산업으로의 유인요인을 막고 (4) 공권력의 폭력근절, 정당성, 도덕성 회복을 통해 폭력이 발붙일 수 없는 사회풍토 근성에 공권력이 앞장서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적 차원에서는 (1)남녀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고 성역할을 유연화하는 성의 민주화운동이 더욱 활발해져야 하며, (2)가부장제 가족제도를 개선하여 가정의 민주화를 이룩해야 하고, (3)개방대학, 방송통신대학, 교양대학 등을 신설, 확충하여 교육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학생의 탈락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셋째, 문화적 차원에서는 (1)도덕성확립, 배금주의 타파, 인간존엄성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2)이기주의타파, 공동체 의식함양도 요구된다. (3)이중적 성 규범을 타파해야 하며, (4)매춘이외의 다른 오락, 스포츠를 통해 건전한 남성문화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상호작용적 차원에서는 가정의 경우 아버지의 자녀교육참여, 가사노동의 참여를 통해 그리고 매스미디어, 상업제도, 교육제도 등에서는 성차별적 스테레오 타입의 감소를 통해 보다 유연한 성의 민주화, 공동체 교육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사회통제의 차원에서는 (1)법적 통제의 차원에서 가족법 개정, 여성 취업기회 확대 보장, 여성의 직장내 지위 및 권력향상, 결혼 강간금지, 성인부녀자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 강화, 형법에 산재되어 있는 성범죄규정을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2)전략적 통제의 차원에서 전담반 운영, 성차별적 통제지양, 제급차별적 통제지양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성에 대한 태도와 성폭력에 대한 지식간($r = .2538$, $P < .0001$)에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성에 대하여 덜 보수적일수록 성폭력에 대한 지식이 많음을 입증하였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1998년 9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2주 동안 K시의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태도 및 성폭력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고 이를 다시 성별로 비교해서 성별에 따른 성에 대한 태도 및 성폭력의 지식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시행한 서술적 비교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남자 대학생 222명, 여자 대학생 200명 총 422명이었고 연구도구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문항, 성에 대한 태도 측정 11문항, 성폭력에 대한 지식측정 10문항, 성폭력의 원인 및 예방대책에 대한 의견을 측정하는 2문항, 총 26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폭력의 원인 및 예방대책은 실수와 백분율로 성별에 따른 성에 대한 태도, 성폭력에 대한 지식은 평균, 표준편차, t-test로 성에 대한 태도와 성폭력에 대한 지식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남학생 52.6%, 여학생 47.4% 였고 연령은 20세미만 41.5%, 20~24세 53.5%로 거의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종교는 없음 46.4%, 기독교 23.5%, 불교 22.5%, 천주교 6.9%의 순이었다.
2. 성에 대한 태도조사에서 '여성은 절대로 능동적이어서는 안되며 남성이 관심을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문항이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냈으며 거의 모든 문항에서 여자 대학생군이 남자 대학생군보다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다. 전체적인 성에 대한 태도측정에서 남자 대학생군과 여자 대학생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여자 대학생군이 성에 대한 태도에서 덜 보수적으로 나타났다.
3. 성폭력에 대한 지식은 '성폭력 범죄는 개인적이고 성적인 문제로만 이해될 것이 아니라 쾌락주의가 빚어낸 우리의 사회적 문제로 파악해야 한다'는 문항에서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냈으며 거의 모든 문항에서 여자 대학생군이 남자 대학생군보다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다. 전체적인 성폭력에 대한 지식측정에서 남자 대학생군과 여자 대학생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여자 대학생군이 성폭력에 대한 지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성폭력의 원인에 대한 연구대상자들의 의견은 '올바른 성교육의 부재', '물질만능과 쾌락을 우선시하는 우리의 사회적 풍토', '성적 자극물의 영향', '여성 억압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사회구조와 그로 인한 왜곡된 성문화', '성폭력 범죄에 대한 관대한 인식과 사회적 무관심', '도덕심 상실과 공동체 의식의 결여', '남녀 차별적인 성역할 사회화'의 순으로 나타났다.
5. 성폭력 예방에 대한 연구대상자들의 의견은 '청소년들에 대한 올바른 성교육', '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한 신속 정확한 검거와 처벌의 강화', '쾌락주의의 사회적 풍토', '성적 자극 물의 확산에 대한 규제 강화 및 향락산업의 규제', '남녀 차별적인 성역

할 사회화의 개선', '성폭력 추방을 위한 범국민 운동 추진', '남녀 불평등 구조개선', '방법제도의 부활 및 방법 대원의 증강과 방법시간대의 연장'의 순으로 나타났다.

6. 대상자의 성에 대한 태도와 성폭력에 대한 지식간에 매우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본 연구는 대학생 집단만을 조사대상으로 한정하였으므로 한국인 전체에 일반화시키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연령을 확대하여 세대간 사고 및 태도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2. 성에 대한 태도 및 성폭력에 대한 지식측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변인을 탐색하여 궁극적으로 한국인의 성에 대한 태도 및 성폭력에 대한 지식에 관여하는 변인에 대한 모형을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
3. 성폭력 예방 대책으로 가장 중요한 순위가 '청소년들에 대한 올바른 성교육'이었으므로 후속연구로 유치원생, 초등학교생, 중학생, 고등학생 및 대학생집단에게 각기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고,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4. 여성단체나 관련단체의 지속적인 대중계몽 및 홍보가 필요하며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성경찰과 여검사 제도의 도입, 전문 신고센터 설치, 비공개재판, 상담소나 쉼터의 확대, 전문의료기관 설치 등을 위한 지역사회 주민의 합의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구수경 (1993). 성폭력 특별법에 관한 여성학적 고찰. 부산여대여성연구, 88-108.
- 김선영 (1989). 강간에 대한 통념의 수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순영 (1997). 충남지역의 성폭력 실태와 문제점, 37-41, 충남 성폭력상담소.
- 김은주 (1997). 성폭력에 대한 대학생들의 태도 조사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태연 (1990). 사회적 성과 강간. 정신건강연구, 9, 1-13.
- 린다 레드레이 저, 김수경 역 (1995). 나의 몸 나의 길 - 성폭력의 예방과 극복.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마가렛 앤더슨 저, 이동원, 김미숙 공역, 성의 사회학,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박민자 역 (1996). 여성사회학, 서울: 경문사.
- 박현이 (1995). 비행청소년의 여성관과 성폭력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영희 (1993). 여성의 사회참여와 성폭력. 서울: 나남출판사.
- 이명선 (1989). 강간에 대한 여성학적 접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광미 (1996). 아동성폭력의 현황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무장관 제2실 (1997). 올바른 성윤리 건강한 사회. 한국여성개발원.
- 조선일보 (1992). 1992. 4. 23 사설.
- 최영애 (1994). 친족성폭력의 실태. 정신건강연구, 13, 1-20.
- 최영미 (1997). 국내 성폭력 지원체계의 현황. 성폭력 문제 연구소, 3-27.
- 최의순, 고명숙, 이규은, 길숙영 (1996). 구타, 성폭력, 이혼을 중심으로 본 여성건강문제에 관한 고찰. 여성건강간호학회지, 2(1), 92-107.
- 한국여성개발원 (1993). 성폭력 상담원 훈련프로그램.
- 한국 성폭력 상담소 (1996). 청소년 성문화를 통해 본 성폭력 실태 및 대책, 1-40.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3-21.
- Bowyer L & Dalton M. E (1997). Female victims of rape and their genital injuries, British J of Ob & Gy, 104, 617-620.
- Box S (1983). Rape and Sexual Assaults on Females, Power, Crime and Mystification, London: Tavistock Publications.
- Burgess A. W (1985). Rape and Sexual Assault: A Research Handbook, N.Y: Garland Publishing.
- Hampton H. L (1995). Care of the woman who has been raped,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26, 234-237.
- Holmes M. M, Resnick H. S, Kilpatrick D. G and Best C. C (1996). Rape-related pregnancy:

Estimates and descriptive characteristics from a national sample of women, Am J Obstet Gynecol, 175(2), 320-325.

Koss M P (1981). Hidden Rape on a University Campus, Rockville, Md : Nati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Koss M P, Kenneth E. L, Dana A B and Chery J. O (1985). Non stranger Sexual Aggression ; A Discriminant Analysis of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Undetected Offenders, Sex Role, 12, 981-992.

Moncrieff J, Drumond D. C, Candy B, Checinskin K and Best C. C (1996). Sexual Abuse in People with Alcohol Problem, British J Psychiatry, 169, 355-360.

Mrazek D. & Mrazek P (1985). Child Maltreatment, 2nd ed., London Blackwell Scientific Publication.

Robinson. J (1990). Rape-A crime with health consequence, The Female Patient, 15; 25-32.

Scully D & Marolla J (1985). Riding the Bull at Gilley's : Convicted Rapists Describe the Rewards of Rape, Social Problem, 32(3), 249-264

Scully D (1990). Understanding sexual violence : a study of convicted rapists, Boston : Unwin Hyman Ltd.

Slaughter L, Brown C. R. V, Crowley S and Peck R (1997). Pattern of genital injury in female sexual assault victims, Am. J. Obstet Gynecol, 176(3), 609-616.

Strauss M & Smith C (1993). Family pattern and primary prevention of family violence, Trends Health Care Law Ethics, 8(2), 17-25.

Youngskin E. Q & Davis M. S (1994). Women's Health, Conneticut ; Appleton & Lange

Thio A (1988). Rape : Deviant Behavior, University of Ohio.

— Abstract —

Key concept : Knowledge of sexual violence, Attitude of sexuality, College student

A Comparative Study of the Awareness of Sexual Violence between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

Lee, Kyu Eun · Yoon, Yang So***

This comparative study was conducted to compare the attitudes of sexuality and knowledge of sexual violence between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22 male students and 200 female students.

The survey was conducted using a questionnaire of 3 general characteristics, 11 items to test attitudes on sexuality, 10 items to test knowledge of sexual violence, 1 item on the cause of sexual violence and 1 item to check knowledge of sexual violence countermeasures.

According to the SPSS/PC Program, Frequency, mean, percentage, t-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were used in analyzing the data.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result of the comparison between two group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in their attitude on sexuality($t = -4.16, P < .000$).
Femal students had higher scores than male students.
2. The result of the comparison between two group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for their knowledge on sexual violence($t = -6.82, P < .000$).
Female students had higher scores than male students.
3. As a countermeasure for prevention, sex educations is needed(27%).

* Kwandong university

** Youngdong college

4. Very high correlations were observed between a subject's sex and his/her sexuality($r=.1990$, $P<.0001$), between a subject's sex and his/her knowledge of sexual violence($r=.3157$, $P<$

$.0001$), between a subject's attitude on sexuality and his/her knowledge of sexual violence($r=.2538$, $P<.0001$).